

## “강력한 견인차 역할 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야”

**한국교회 다이내믹과 회복력  
 없고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  
 구도자적 태도로 영성 추구해야**

목회의 본질과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고민을 다루는 세미나가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에서 23일 4시에 열렸다.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한국의 젊은 담임 목회자들과 LA의 젊은 담임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가 강의했다.

이규현 목사는 팬데믹 이후에 목회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목사는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집회를 잘 안 다니는 편인데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전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 그 교회는 교인이 등록하면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끝을 낸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새벽기도에 가야 하는 줄 안다.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이미 오리를 따라가듯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면서 “나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새가족부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그리스도론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새로운 분들과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혼신의 마음을 다해 가르치니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진해 들어



목회의 본질과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고민을 다루는 세미나가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에서 23일 4시에 열렸다. ©기독일보

와 교육 받기도 한다. 소문이 나서 찾아오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교회 시그니처가 되어서 교인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 우리 교회에 ‘이것만은 꼭 경험해 보세요’ 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목사는 “교인들도 다 알고 있고 ‘이 교회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 시그니처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목회자가 정성을 들이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무엇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또 철야 기도가 있다”라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것이 더 진가를 발휘한다. 원래 잘 모이고 뜨거운데 더 강력하게 불이 붙었다. 어느 교회는 금요 철야를 시작했다가 금방 흐지부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를 40년 동안 계속해 왔다. 원로 목사님이 해 온 것을 제가 이어받은 것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오고 전국에서 탐방이 올 정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규현 목사는 “어떻게 철야를 잘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 전통이 다 철야기도를 해왔는데 부흥하고 세련되면서 심야기도와 저녁기도가 점점 약화되었다. 수영로교회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철야기도를 한다. 세상의 연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떤 분들은 금요철야를 행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벤트를 해서 교인들을 모이게 하는데 이벤트는 1년 12개월을 하지 못한다.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계속 오지 못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금요철야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에 금요철야만 살아 있어도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직분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고를 내는데 이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은혜를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역이 피곤해서 직분자들이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도 금요철야를 통해 은혜를 받고 다시 사역을 해나간다”라면서 “나는 주일설교와 금요철야기도회를 동등하게 준비한다. 교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 다이내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이내믹을 잃어버렸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폭발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다. 오늘 어렵지만 초대교회보다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탄력성이 사라졌다. 노화는 회복력의 약화이고 노인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침체가 된 지 30년이 넘었고, 회복력이 약화되면 다이내믹이 사라진다”라면서 “결국 다이내믹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다 기도에 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할 것은 별로 없다. 목회는 하나님이다 하신다. 설교 준비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면으로 계속

##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미 전역 52개 교회 참여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20-21일(금-토)에 ANC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ANC온누리교회, GBC

“장애의 영향 아래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과 좀 세션을 진행했다. 그 중에는 내 동생 매건이 있었다. ‘헤이, 매건, 아무 낙인과 고통 없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 멋지지 않아? 동생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우리는 여전히 장애를 갖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면 멋지지 않아?’ 동생은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오케이, 매건,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갖고 천국에 갔어. 그런데 장애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면 어떨까?’ 그러자 동생은

주저 없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것(장애)을 축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미주복음방송(GBC)와 ANC온누리교회가 공동 주최한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10월 20-21일(금-토) ANC온누리교회 1층 본당에서 막을 올리며, 미주 교회 안 장애 사역의 필요성과 현황을 확인하고, 한인교회 가 나아가 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2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 무대에 올라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라는 비전으로 세계 선교에 온 삶을 바쳤던 고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을 기리는 기념 음악회가 지난 21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11월 13일에 태어난 고 임동선 목사는 1945년 공산주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남쪽에서 넘어온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그를 살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넷째 형 임수열 전도사가 생각났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 기도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지게 된다. 지계곤 일을 하며 신학교 학비를 벌고, 성경을 품에 안고 낙동강을 건넌고, 공군 군종감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1965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그의 자택에서 장년 16명과 학생 31명이 모인 가운데 1970년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1987년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를 창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의 한 장면 ©기독교일보

립했으며, 1989년 월드미션을 설립하고 개교예배를 드렸다. 2016년 15박 16일의 일정으로 남미 4개국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93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진행된 이 기념음악회는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

성되었다. 연대기 순으로 구성된 각 에피소드마다 창작곡을 통해 고인의 선교적 삶과 정신을 표현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임동선 목사님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억되어야 할 분이시다. 그가 보여주

었던 희생과 헌신의 삶, 그가 모토로 삼았던 선교, 교육, 봉사의 삶을 되새겨 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전임 총장)는 "그 분의 삶의 현장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고 들어 온 사람으로서 그분의 귀한 삶의 흔적을 깃털처럼 쉽게 날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공연을 총괄 지휘한 윤임상 교수는 "임 목사님은 야곱의 압박강 씨름 같은 투쟁을 일평생 해오셨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공연의 동기를 밝혔다.

이번 공연의 곡은 송윤규 작곡가가 작곡했고, 클라라 김이 연출을, 최원현이 임동선 역, 소프라노 신선미가 황재순 사모 역, 오위영 목사가 이승만 역으로 분했으며, 조창현, 손종수, 오정록, 김민형, 윤우경, 스카신, 이동진을 비롯해 극단 시선(Seasun)의 연기자들과 WMU 오케스트라와 LAKMA 합창단이 참여했다. 공연의 방문자들에게는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화보집을 증정했다. 김동욱 기자

## →1면 기사 '강력한 견인차 역할 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야'에 이어서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 ©기독교일보

마지막으로 이규현 목사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에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 말은 교회 성장주의에서 온 폐해이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방법론이 들어가는데 교인들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에 행사가 왜그리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교회에 좀 구도자적인 태도가 있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친다. 그리고 너무 분주하다. 그러다가 결국 소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어두워진다. 복음이 사람을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마저 기쁨으로 가게 한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면서 "목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통찰력의 문제인데 여기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로드맵 미니스트리의 이규현 목사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미주선교회 회 탐방 및 훈련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미 전역 52개 교회 참여'에 이어서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공동창립자 케이 워렌(Kay Warren) 사모 ©ANC온누리교회, GBC

컨퍼런스 첫 날인 20일(금) 오후 6시 30분 강단에 오른 케이 워렌(Kay Warren, 새들백교회 공동설립자)사모는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개인이나 가정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나눴다. 그는, 이들이 도움을 찾아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교인이나 성직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도움을 얻지 못했더라면 정신 질환자들을 도움 준비가 미흡한 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미셸 이스트만(Michelle Estman)이 사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란성 쌍둥이 중의 하나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는,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장애를 어떻게 보실지', '왜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물었고, 그것이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 전역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신앙을 지닌 이들을 인터뷰했고, 그로부터 그들의 공통된 경험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공통점은 이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많았다. 이어서 워렌 사

모는, 우리 주변에 수 많은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다수가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며,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10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펜타닐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약물 과다 복용이다. 미국에서는 4만 9천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제외된다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팔을 대신해 그들을 품어야 할 영적 가족들이 그들에게 팔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희망을 잃게 된다."

워렌 사모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배제되고,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우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호감형이거나,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이 좋아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우정을 베풀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강력한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꼭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매우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매우 간절하게 관계를 갈구했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런데 7월 4일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과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 위해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티오에 홀로 남아 있는 그 형제를 보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그를 가족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갈 수 없었다. 홀로 그를 남겨 둔 채 차를 타고 출발했고 그날 밤 나는 밤새 울면서 나의 차가운 마

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일회적 일화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며, 예수님의 긍휼을 모든 이에게 나누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셸은 장애인들을 위한 몇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할 것들에 대해 나눴다.

"설교에 장애와 관련된 비유로 사용하지 말라, 장애에 대한 용어로, 'handicapped'나 'special need'보다, 'disabled'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위십에 초대할 때, '일어서라(stand up)'라는 표현 대신에 위십에 함께하자는 표현을 사용하라. 장애인들의 장애 관련 장치들을 만지지 말라. ASL 통역사를 고용하라, 빛이나 소리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센서리 룸(sensory room)을 준비하라, 장애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장애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보라. 장애관련 서적을 읽으라(추천 서적: Nancy Eiesland의 'The Disabled God'), 그들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내가 나의 장애에 관해 갖고 있는 시각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

마지막으로 워렌 사모는, 장애와 관련된 감정인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낙인(Stigma)은 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의 하나는 그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간단하지 않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듯,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약점과 불완전함, 무능함을 모두 보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신다고 하신다. 서로에게 붙여놓은 낙인과 수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주디 한 기자

초대합니다

## 제2회 WE BRIDGE CONFERENCE

###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께 힘이 되어 드리는 제2회 위브리지 컨퍼런스를 감사한인교회에서 합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집회에는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길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날 짜** 2023년 11월 6일(월) 저녁 7시~9시  
2023년 11월 7일(화) 저녁 7시~9시

**장 소**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기획: Oneheart Ministry 주관: 기독교일보, ING ☎ 213.739.0403 ✉ webbridgeinfo@gmail.com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 크니무교회, CGNTV



김영길 목사(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 할로윈보다 '홀리윈' 히즈쇼, OMC와 함께



기독교 어린이 행사를 진행하는 히즈쇼는 LA 동양선교회(OMC)와 함께 LA 지역 한인교회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 않도록 할로윈 시즌인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한 기독교 교육의 장인 '홀리윈(Holywin)' 축제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홀리윈' 기간 히즈쇼 초청 뮤지컬 & 살아나는 성경박물관, 그리고 히즈쇼 캐릭터 에어바운스까지 동원해 다이나믹한 행사를 기획했다.

홀리윈 행사 신청이 오픈되자마자 1천여 명이 신청했다.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히즈쇼'는 국내 최대 기독교 가족 뮤지컬로 3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해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교회 초청 공연으로 매년 4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히즈쇼 어린이 페스티벌'에서 '살아나는 성경박물관'과 '히즈쇼 가족 뮤지컬'을 함께 한 국내 최대 기독교 어린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날짜: 10월 28일(토), 10월 31일(화), 11월 4일(토)

티켓은 1명당 \$10 (뮤지컬, 바운스, 박물관 포함) 문의: 323-466-1234

## “장애 속에 가려진 하나님 형상 발견해야”

###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인간의 위대함 회복된다”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미주복음방송과 ANC온누리교회 공동주최로 ANC온누리교회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는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미 주류 교회에 손꼽히는 장애인 사역 전문가들과 한인교회 장애인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차세대 장애 사역의 미래와 리더 양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장영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장애인 사역’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장영준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은 창조, 성육신, 부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가 믿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창조를 못 믿겠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하나가 못 믿어지면 모든 것이 못 믿어진다”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장 목사는 “과학에서는 인간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한다. 진화론을 가만히 보면, 가설에 가설을 붙이고 인간이 우연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서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서 장영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장애인 사역'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기독일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장애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곳곳에 혼란을 주는 단체가 신천지인데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전도에 합당한 자(합자)와 전도에 합당하지 않은 자(비합자)라고 나눈다고 한다. 비합자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일컫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는 이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목사는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교회의 한 성도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위대함을 버린 결과에 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애석하게도 그러한 일들은 교회에서조차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장애라고 하는 두꺼운 외투 속에서 꼭꼭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지체장애의 경우, 동기부여만 해주면 된다. 지적인 문제가 없으면 동기부여만 해주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일어서서 간다. 발달장애는 지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교회가 차세대를 품겠다는 말은 허공에 하는 선언밖에 안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교회의 한국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1.5세 2세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흐름 대로 같이 가야 한다. 발달장애사역이 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 확장을 얘기하지만 차세대 교인들의 정착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장애 사역은 큰 교회만 한다는 생각, 꼭 전담사역자, 부교역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 멩 기자

## 새로운교회 설립감사예배 드리고 새 출발 알려



엘에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로운교회가 설립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드렸다. ©기독일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로운교회가 설립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예배에서 박찬길 담임목사는 “21명의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얻기 어려웠었는데 이곳을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 이름을 새로운교회라고 지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전교인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지금 설립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

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사를 한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엘에이를 복음으로 뒤흔들 새로운교회가 출발하게 되어 축하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된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떠올랐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박 목사님을 볼 때 늘 밝고 격려를 잘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제자 훈련을 잘하는 분으로서 이곳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졌으면 한다.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안디옥교회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권오성 목사(인천큰빛교회)는 “이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란다. 항상 진리 앞에 복종하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예수님

이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신부이다. 그동안 주께서 주신 물질들을 사랑하는 주님께 다 돌렸듯이, 앞으로도 평생 주 앞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한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기도가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지는 것이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큰 축복인데 평생 주님께 잡혀서 쓰임 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박찬길 목사가 인도했으며,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 김영현 목사(전 서울연회 감독)가 설교를, 강성도 목사(하나교회)가 축도를 했다.

박찬길 담임목사는 한국의 양화교회(10년) 샌프란시스코의 좋은교회(20년), LA생수의강교회(4년)에서 목회를 해왔다.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문의전화 213-505-4630 토마스 멩 기자

# 가을 스페셜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4 HYUNDAI Ioniq5** SEL

##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3 HYUNDAI Santa Fe** Hybrid Limited AW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5 SEL**

**NEW 2023 HYUNDAI Ioniq6** SEL A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6가지 단계

## 위 브릿지 컨퍼런스 세번째 강의, <전도는 기쁨이다> 강사 유성국 목사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사역, First Congregation Church 설교 목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다른 직업이 또 있었다. 학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누가는 성경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저같이 마켓에서 전도하려면 쑥스럽고, ‘하기 싫은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밖에 나가서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못하

니 전도를 못하는가? 누가는 조용히 앉아서 사도행전을 썼고 우리 모두 읽고 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글 쓰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2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을 일 년 동안 만났다. 9개월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열 가지 질문이라는 동영상 만들어 놓았는데, 2만 2천 뷰가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반박하는 이메일을 계속 받는다. 글을 써서 연구해서 유튜브에 올려 놓으니 몇천 명이 본다. 노방전도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단점이 아니다. 성격 활발한 게 다가 아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의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유성국 목사의 말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된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올해 11월 6일부터 8일까

지(월~수)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위 브릿지 컨퍼런스는 위 브릿지 교회들과 사전 설문지를 통해 각 교회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여, 작은 교회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각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세번째 강의, <전도는 기쁨이다>를 맡은 유성국 목사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979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은 1.5세로 OM선교사로 섬겼고,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 Div.)를 졸업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부에나파 뉴라이프선교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는 가스펠투올(Gospel to All)전도센터를 통해 풀 타임 전도 사역을 하며 미국 교회 First Congregation Church에서 설교 목사로서 섬기고 있다. 그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도의 6가지 단계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1. 하나님의 소원 한가지
2. 한 영혼을 찾아나가기
3. 영혼을 위한 기도

4. 관계 맺기 (다양한 전도 방법)
5. 복음 전파하기
6. 교회로 인도

그는 전도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간단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저 멀리에서 완전히 거지의 모습을 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시커먼 사람이 걸어온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아버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들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성경에서 뛰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밖에 없다. 무엇이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유성국 목사의 저서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와 전도>, <10 Powerful Questions You Can Ask Muslims> 등이 있다. 유 목사는 웹사이트 [www.gospeltoll.com](http://www.gospeltoll.com)를 통해 전도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신학생들이 홈리스 사역 3년은 경험해 봤으면...”

최근 무디 고 목사(아버지밥상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중독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GBC 행복한 동행에 출연해 간증을 나눴다.

LA 한인타운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무디 고 목사는 첫 발언에서 “밖에서 잘 곳이 없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을 먹이고 센터로 데려와서 가족같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형제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며 “홈리스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중독의 문제다. 주위에서 노력해서 이들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지만,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가 혹은 시에서 이들에게 돈이나 집을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 목사는 “밖에서 홈리스들의 고통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텐트에서 공격을 받아서 몸이 상하고 갈취를 당한다”면서 “팬데믹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지금도 나사로 전도사가 새벽 두시에 일어나 로렌하이츠에 가서 도너츠를 픽업하고 커피를 만든다. 지금은 제가 빅토빌에 가서 사역하고 있어 LA 사역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 형제들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에 홈리스 사역 센터 있어야  
그는 “LA 시장이 홈리스를 돕는다고 2년



최근 무디 고 목사(아버지밥상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중독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GBC 행복한 동행에 출연해 간증을 나눴다. ©아버지 밥상 교회

간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그분이 못한다고 두 손을 들었다. 홈리스를 돕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사역은 교회만 할 수 있다. 저희 같은 선교회가 LA나 오렌지카운티에 100개 정도는 생겨야 홈리스 사역이 이뤄질 것이다”라면서 “이 방송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다. 대형 교회에서 집을 하나 사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에 홈리스 사역을 하는 집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그만 창고에서 30명이 생활하면서 매일 200명을 먹일 음식을 만들어서 다운타운에서 그들을 돕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지만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라면서 “하나님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으로 교회들이 협력해서 가장 살기 좋은 LA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홈리스들이 변화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

고 목사는 “이 사역이 처음에는 부담이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 모든 교회에서 하면 좋겠고 모든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형교회에 가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홈리스 사역을 3년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먹고 씻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야 LA, 미국 50개 주,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홈리스를 돕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

만, 이들이 변화되면 더이상 홈리스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강력한 전도사가 된다.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이다”고 했다. 또 그는 “교회와 신학생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한다. 지금 LA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훈련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나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약 중독으로 8년 동안 홈리스 생활을 마치고 변화되어 이 자리에 참여한 나사로 전도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 아버지밥상교회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변화되어서 1년간 함께 살면서 날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다운타운의 영혼들을 제자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고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었다”라면서 “나의 비전은 50개 주의 홈리스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홈리스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간증을 나눴다. 토마스 맹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APPY Thanksgiving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신발 슈올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한국산 명품 기능성 신발
- 진동칩이 들어있는 신발
- 허리, 다리, 무릎을 보호해주는 신발
-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신발
- 체내 혈류를 증진시키는 신발
- 신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 신발
- 장시간 활동에 피로를 덜어주는 신발
-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신발



목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신발!





신발, 과학을 담다!

**슈올즈** 미주1호점 (213)908-6497  
3500 W. 6th St, Suite 233, Los Angeles, CA 90020 (LA 시티센터 2층)

**영업 시간**  
월-토, 오전10시~오후 6시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플랜 상담 개최!

상담에 참여하시고 맛있는 식사와 선물 받아가세요!

**날짜** 11월 1일 (수) 11월 15일 (수) 11월 29일 (수) **중 택 1**

**시간** 11:00 AM **장소** 초만원 식당 901 Starbuck St #M, Fullerton, CA 92833

**예약/문의** (714) 519-3024 전화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8:30 AM ~ 5:30 PM)

- \* 각 날짜 당 **참석 인원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3일 중 **하루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 위 전화번호로 **필히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학과 —————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교회 단신

▶토렌스조은교회가 10/28(토) 오후 1시-3시까지 본당과 교회 주차장에서 Holywin을 진행한다.

▶글로벌선교교회는 10/29(주일)에 Fall Festival을 연다.

▶남가주한인합창단(단장 김정자, 지휘 최원현)이 10/29일(주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티켓 20달러. 수익금의 일부는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 후원에 쓰인다.

▶한길교회는 10/31(화) 오후 6-8시 30분에 4층 체육관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를 연다. 11/10-11/12(금-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딤후 2:1-4)'를 주제로 김태일 목사를 초청해 말씀 사경회를 연다. 11/10(금) 오후 7시 30분, 11/11(토)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 11/13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된다.

▶밸리연합감리교회(안정섭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11/5(주일) 오전 10시에 창립기념예배를 드린다. 예배 중에 은퇴 찬화식과 직분자 임명식도 진행된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2023 영혼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11/19(주일) 간증 나눔의 밤과 동산별 전도 잔치, 12/3(주일) 찬양제, 12/14 성탄감사주일 및 성탄축하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10/31(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 마당에서 Fall Festival을 연다.

▶11/5(주일) 오후 5시 패서디나 장로교회에서 한인기독교합창단 62회 정기 연주회가 있다. 티켓 20달러, 문의 213-503-0812, contact@kccsca.org

▶주님의영광교회에서 10/29-11/18까지 '미라클 블레싱'을 진행한다. 첫째주간 (10/29-11/4월-목: 부흥집회)은 김동기 목사(부천 광음교회)가 강사로 서며, 둘째주간 (11/5-11/11)에는 윌: 최형규 목사(생수의강 교회), 화: 남상권 목사(가든그로브 남가주 어노팅팅 교회), 수: 이나토미 유이치로 목사(Gospel Siloam Church), 목: 최형규 목사, 셋째주간(11/12-18:월-목)에는 강신정 목사(논산 한빛교회)가 강사로 선다. 찬양은 '마지막 날에', '새벽 이슬 같은' 곡 등을 작곡한 이천 목사가 인도한다.

남가주 가을 하늘을 수놓은 특별한 음악회

월드쉐어USA 주관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 후원의 밤

지난 10월 21일(토) 오후 7시 새누리교회 구성전에서 World Share USA가 주관으로 주사랑나눔여성선교합창단 창단 음악회가 열렸다. 이 음악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 및 전쟁 미망인을 위한 후원의 밤을 겸하여 진행됐다.

월드쉐어 홍보이사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수호 목사(올림픽 장로교회 담임) 개회 기도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의 설교, 광건설 목사(예은장로교회)의 축사에 이어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음악회는 주사랑나눔여성선교합창단의 합창과 남성 중창단 소노로스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창단 5개월 된 선교합창단은 앵콜곡 두 곡을 포함하여 11곡의 찬양과 가곡을 열창했다. 특히 합창단은 여성 합창단의 감미로운 음악과 가을 향기 가득한 노래를 선사해서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주사랑나눔선교합창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음악회를 선보이며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10월 21일(토) 오후 7시 새누리교회 구성전에서 World Share USA가 주관한 주사랑나눔여성선교합창단 창단 음악회가 열렸다. ©World Share USA.

월드쉐어는 후원자의 밤 수익금을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을 위한 기금으로 송금했고 또 곧 송금할 계획이다. 월드쉐어 USA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방지역 난민과 전쟁 희생자 가족들의 월동을 도울 예정이다. 오랜 전쟁으로 전기와 물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현지인들,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강태광 목사와 함께 국제 군중목사 활동을 같이 했던 우크라이나 키르치 목사가 우

크라이나 현지에서 기독교인 연합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키르치 목사는 군중목(육군 중령)으로 전역후 전물장병 가족 돌봄, 전쟁 미망인(고아) 돌보기 그리고 전쟁지역 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 그리고 전방지역 난민 돕기에 관한 문의는 월드쉐어 USA(323 578 7933)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가자지구 유일 개신교 목회자 “증오에 지배당해선 안 돼”

한국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대표와 인터뷰

가자지구의 유일한 개신교 목회자가 “현재 가자지구의 분쟁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자지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나 마사드(Hanna Massad) 목사는 중동에서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순교자의소리(VOM Korea) 대표인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 단계의 우리 상황은 기본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같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뜻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다.

마사드 목사의 가자침례교회는 현재도 여전히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기독교 가정 100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West Bank, 요단강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에 거주하는 기독교 가정 100가구 및 1991년 걸프전 발발 이래 가자 침례교회 성도들이 요르단에서 보살피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 가정 700가구를 포괄한다.

마사드 목사는 “가자침례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믿고 있다”며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족이나 가자지구 기독교 공동체뿐 아니라 유대 민족도 위하고 있다. 이는 주님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방에서 오는 적들에 포위당해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우리는 세 개의 불 사이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라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불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및 전통적인 교회(가자지구 그리스정교회와 가톨릭)라는 불이다. 이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불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원한과 증오심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사드 목사는 “만일 우리가 원한과 증오심에 지배당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신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인터넷 화상 모임은 친밀성을 유지하는 수

단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마사드 목사는 가능할 때마다 함께 모이라고 성도들을 계속 격려한다. 마사드 목사가 방문하면 보통 50명에서 60명의 성도가 함께 모인다.

그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고립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 가운데 일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그리스정교회 근처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다. 요즘은 가자침례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교회가 경찰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며, 가자지구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에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전력이기에, 일부 교인들은 인터넷 화상 모임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사드 목사는 “오늘은 인터넷 화상 모임을 통해 상담사인 친구와 트라우마 상담 모임을 가졌었는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교인 일부는 화상 모임에 접속을 하지 못했다.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정신 건강을 많이 걱정한다”고 했다.

마사드 목사는 가자지구 외부의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의 교회에 참석하는 100가정 외에도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이라크 난민 700가정이 항상 격려해 준다”며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강해진 기자

Advertisement for Innervis Nutrition featuring various vitamins and supplements like Apple Cider Vinegar, Biotin, Vitamin D3, and Fish Oil, with a list of 13 products and their benefits.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주세대에)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원정성예배  
대학원대학/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ken 교회)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와나(AWA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탄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배(마지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v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그렉 로리 “하마스, 이스라엘 완전한 파괴 추구... 합의 어려워”



그렉 로리 목사. ©C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하마스의 치명적인 테러 이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잔혹성을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렉 로리 목사는 최근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표적이 된 사진을 살펴보면 여성, 심지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노인들도 등장하고, 가장 최근에는 아기들이 살해를 당하고 잠수했다는 소식들도 들린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악”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 또는 ‘식민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선언하며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길 원한다. 그러나 하마스나 다른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를 추구하기에 협상이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하마스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협상하기가 어렵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이후 이런 수준의 타락과 잔혹 행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유대 민족이 역사적으로 그토록 많은 박해를 받아온 이유에 대해 “이 전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며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가 적기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다”고 설명했다.

로리 목사는 “믿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선계로 이끄셨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굽 왕 바로는 유대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유대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할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민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때를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에스더를 두셨다. 1900년대에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대대적인 시도와 함께 독일에서 나치즘이 부상했다. 하마스의 행동은 동일한 비극적 시도의 새로운 버전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는 정말 악마적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들은 기독교인도 미워한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리 목사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인질들은 여전히 감금돼 있기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도 특정한 마지막 사건과 확실히 연결시켜선 안 된다면서도, 이들 국가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 우간다 청년 전도자, 무슬림들 폭행으로 의식 잃어

우간다 캄팔라에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한 청년 전도자를 그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이 가해자들은 앞서 3명의 기독교인들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6명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10월 10일 오후 7시 쯤 우간다 캄팔라 카와알라 지역에서 거리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로버트 세티바(Robert Settimba·27)를 공격했다”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무슬림들은 ‘카피르’(이교도)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하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세티바를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막대기로 때렸다. 난 모든 장면을 멀리서 무기력하게 지켜봤다. 일부 구경꾼들은 나까지 위협했고, 나는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 교회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와, 세티바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그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가슴, 허벅지, 왼손,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왼쪽 발목이 붓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 세티바는 캄팔라, 키센위, 와데게야, 카알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슬림을 위한 거리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나의 선교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특히 젊은

사업가, 학생,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이 회심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날 지원해 줬고, 치료비로 5만 우간다실링(약 17,600만 원)을 줬다”면서 “폭행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0월 17일 카세세(Kasese) 지역에서는 우간다 서부의 거대한 퀴엘리자베스 국립공원에서 기독교인 관광 가이드를 맡고 있는 에릭 알리아이(Eric Alyai)와 외국인 부부가 연합민주군(ADF)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이들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장작을 가져오다가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은 총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관광객의 차량에 접근해 ‘우리는 당신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우간다 기독교인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총을 쏘고 차량을 불태웠다”고 전했다. 그는 “알리아이는 관광객을 카세세에 있는 기독교인 소유 호텔로 데려가 지역 교회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독교인 관광객을 카세세의 교회에도 데려갔다”고 전했다. 알리아이 씨의 유족으로는 아내 루스 무탐바(Ruth Mutamba)와 어린 자녀가 있다.

강혜진 기자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전쟁 후, 김일성의 기독교 제거 정책

김일성은 6.25 남침 전쟁에서 실패 후 자신의 공산 정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1958년부터 북한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전면적 사상 교육을 전개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초토화된 산업 시설과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 후 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되자, 기독교를 제거하는 데에 통치력을 집중화하였다.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상자에 넣지 않고 상자 밖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투표에 2천여 명이 가결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안사무국은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만화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1958년에 36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처형당하였고 나머지 성도들은 노동 수용소나 탄광지대로 보내졌다. 1975년에도 지하교회 조직을 이끌던 어느 목사는 평양 주변에서 은신하며 지하교회 성도들과 신앙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장작불에 올려져 화형을 당하였다. 조사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비과학적 행동임을 보여 주기 위해 그런 처형을 집행한 것이었다.

1958년 5월 노동당은 "어떤 형태의 반혁명주의자들과도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고, 1958년 8월에는 지식인 제거라고 하는 '인텔리 개조 운동'을 시작했다. 북한 공산 정권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공산주의 낙원'을 거부하거나 아예 동조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제거했으며, 1958년 11월 노동당은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결정하고 그들을 색출, 억압하기 시작했다. 핍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체포와 동시에 약식 인민재판만 받고 대부분 공개 처형되었다.

그 예로서 1960년 8월 17일 8명의 기독교인이 해주에서 재판 없이 공개 처형되었다.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김일성 정권은 모든 주민들의 거주지 등록을 완료하고 모든 사람들을 51개의 신분으로 세분화하였다.

북한은 전 주민을 분류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의 사상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는 인도의 수 천 년의 종교적 폐습인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체제를 세운 것이었다. 그러한 폐쇄적이며 반인륜적인 정책이 지금도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동포는 70여년에 걸쳐 압정에 신음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대표적인 속사도 교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난 초대 교회를 든든히 지켰다. 당시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기까지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젊은 시절에 베드로와 바울과 교제하였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성장했다. 폴리갑과 파피아스는 이그나티우스를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속사도 교부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7서신에서는 그가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깊은 유대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서신을 읽으면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과 고린도서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영적 동료는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 감독이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쓴 7개의 편지들이 전하는 사연 이후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행보는 폴리갑 감독이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했던 사이였다. 잘 아는 알려진 것처럼 폴리갑 감독도 이그나티우스에 이어서 순교자가 되었다. 폴리갑은 서머나에서 화형당하여 순교자가 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후에 그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를 그리워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남긴 편지들의 복사본을 폴리갑에게 요청했다. 이에 폴리갑 감독이 빌립보 교회와 이웃 교회들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들이 2세기 교회들에 중요한 회람문서로 전해진다.

아쉽게도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다행히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남긴 자료들이 속사도 교부로 교회와 신앙을 지킨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자료를 남겼다. 폴리갑,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 등이 남긴 자료들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얀(트라야누스)황제 때 로마에서 야수형으로 순교한 것이 확실하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이그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티우스를 사도 베드로, 에보티우스에 이어 안디옥의 3대 담임 목회자였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교회 2대 담임 목회자였다고 전한다. 여하간 그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서신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매우 존경했음을 밝히고 사도들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았던 인물로 당대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다.

필라델피아는 지금의 터키 알라셰히르다. 애석하게도 이 도시의 현재 이름은 '알라의 도시'란 뜻이다. 빌라델비아는 리디아 왕국의 중앙 고원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있던 교통의 중심지이며 서쪽으로는 버가모와 사테를 잇고 동쪽으로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잇는 도시였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요한 계시록에 일곱 교회 중의 하나인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친척 누기오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승은 이 도시의 첫 교회 감독은 요한이 임명한 데메트리우스였다고 한다. 여하간 속사도 교부가 목회하며 든든히 세운 교회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가 이슬람에 의해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이다.

이그나티우스가 필라델피아 교회로 보낸 편지는 12장 23절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 인사에 이어 1장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감독의 인격을 칭찬한다. 주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이유가 헛된 세상적 야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성도가 주교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준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관된 입장이다.

2장부터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 일치에 강조한다. 2장 1절에서 분열과 그릇된 가르침을 멀리 하라고 가르친다. 일치의 목적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가꾸시지 않은 풀을 먹지 않기 위해 목자의 지도와 안내를 잘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엄히 경고한다.

5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교를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말한다. 서신 전체 내용에 비하여 유대교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에 유대교 폐해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료에 의하면 필라델피아에 왕성했던 회당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대교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는 무리가 분열을 조장했던 것 같다. 분열을 막고 일치를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7:2).

이그나티우스는 '분열과 분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8:1)'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과 주교단(목회자)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분열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이든지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8:2).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분열하지 말고 아버지의 문인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10장 11장은 결론과 인사다.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마치며 여러 교회의 소식을 나눈다. 먼저 자신이 두고 온 안디옥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한 기도와 안디옥 교회를 위한 사역자 파송을 부탁한다. 그리고 이런 봉사

의 의미와 영광을 설명한다. 이어 자신을 돕는 필로와 레우스 아가토푸스를 칭찬한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 같다. 이어서 머무르는 드로아 교회 안부를 전하며 에베소 교회 출신 부루스 집사의 도움으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힌다. 이그나티우스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믿음을 권하고 있다.

■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필라델피아에 보낸 이그나티우스 편지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SEVIS 승인,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TS,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온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Th.M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제 2 회 WE BRIDGE CONFERENCE

##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e Bridge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CAN ME!

### MAIN SPEAKER



**저녁 연합집회 설교**  
김영길 목사(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개회 예배**  
이건창 목사  
발렌시아샘물교회 담임



**폐회 예배**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 SEMINAR SPEAKERS & PRAISE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유경재 목사  
나성북교회 담임  
충신 신학대학원 M.DIV.



**"말씀에 능력을 붙여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전도는 기쁨이다"**  
유성국 목사  
GOSPEL TO ALL 전도센터  
부에나팍 뉴라이프 선교교회(96-1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유수연 사모  
CA ABC 통일교육 교육위원장  
GATEWAY ACADEMY 대표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현황"**  
에스라김 목사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롬김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플러신학대학원 Ph.D



**집회 예배 찬양**  
원하트 미니스트리

**날짜 : 2023년 11월 6일(월)~8일(수)**

**장소 :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마감일: 2023년 10월 28일(토)까지 선착순 마감(등록비 없음)**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

**기획 : Oneheart Ministry    주관 : 기독일보, ING**

**후원 :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 큰나무교회, CGNTV**



강준민 칼럼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리더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지도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은 긴 역사를 가지고 논의된 질문입니다. 리더십도 하나님의 은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누구나 개발해야 할 능력이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리더십을 배

우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리더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리더는 선견자(先見者)입니다. 선견이란 앞서 보는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리더는 앞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볼 수 있어야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반면에 나쁜 지도자는 사람들을 뒤에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 리더는 정견(正見)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견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아야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정견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정견이 아닌 편견(偏見)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의미합니다.

셋째, 리더는 선각자(先覺者)입니다. 선각(先覺)이란 앞서 깨닫는 것입니다. 선각이란 앞서 사물의 이치와 인생의 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마 13:23). 깨달아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은 사건과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안목입니다.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 핵심을 간파할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문제를 예견하고 문제를 미리 방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직면한 문제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 리더는 선구자(先驅者)입니다. 선구자란 앞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선구자란 개척자입니다. 남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리더는 전통과 변화에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통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만 고집하면 소중한 전통과 본질과 기본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육 그리고 종교 모두 같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극단적 보수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극단적 진보는 우리가 고수해야 할 전통과 역사를 무시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은 균형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용(中庸)입니다. 중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수 1:7). 중용은 본질에 충실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서 시대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드셨습니다. 받고 키우고 나누어 주는 조화를 만드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조화를 만드셨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화를 만드셨습니다. 경계와 한계를 만드셨습니다. 리더는 깨어 있어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리더는 선험자(先驗者)입니다. 선험은 앞서 경험(經驗)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가운데 남자 의사도 많습니다. 남자 의사가 아이를 임태하고 출산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과 대학에서 공부함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란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학습과 훈련과 독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평생학습 하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성장을 멈추면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리더가 성장을 멈추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탁월한 리더로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복 있는 자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랑스러운 사람, 늘 명랑하고 친절 한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사업체에 심방 하다가 복(福) 자를 뒤집어 붙여 놓은 것을 종종 봅니다. 복이 쏟아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은 복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대학이나, 시집 장가도 잘 가면, ‘복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 받았다’ 보다는 ‘복을 나누다’에 그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개역 개정) 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될지라’가 아닙니다. ‘복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될지라’가 그 원래의 의미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그 근본 의미가 내재하여 있습니다. 복

을 많이 나누려면 당연히 받은 복도 많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많이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나누기 전까지는 복을 많이 받았어도 아직 복(blessing)은 아닙니다.

이전 개역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였습니다. 물론 ‘복이 될지라’가 좀 더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나 샘물이 그 근원에서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복은 나누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라는 복의 본질을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복된 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면세점 체인 DFS의 공동창업자 척 피니(Chuck Feeney)가 2000년부터 하루에 백만 불씩 기부하면서 자신의 총자산 중

99%, 80억 불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죽었을 때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늘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왜 기부냐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중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나눌수록 행복이 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나누며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자가 행복하고, 행복한 자가 그 행복을 나누게 됩니다. 많이 나눔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나눔시다. 소유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진유철 칼럼

#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삶이 복되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신앙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머무르는 증거가 나타났고, 침례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람을 찾아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찾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자기의 의, 공로, 행위를 자랑하는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함께 동행 하는 것

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100%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 시몬에게 증거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동행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학벌, 족보, 경력, 인품조차도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 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증거 하는 사명을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지 있고 보람된 삶, 이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콜롬비아를 다녀온 것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원하는 커피를 구입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관광을 하려는 마음이 앞섰다면 분명 실망했을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유명한 커피나 음식이나 관광 등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를 증거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번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내년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복음을 전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성령님이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므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에녹회 효도잔치와 제7차 페루 단기선교도 예수복음을 증거 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 됨과 하늘의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구봉주 칼럼

# 해체주의의 시대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는 1960년대, 독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주장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주로 예술과 건축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때부터, 많은 건축물들이 호텔과 아파트는 정방형, 교회건물은 높은 첨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해체주의 건축물의 한 예입니다. 생긴 것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건축 디자인을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입니다. 원래, 건축물들이 나름의 오랜 전통적 디자인을 고수해 온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구조적인 이유,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무너지지 않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안전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디자인을 형이상학적으로 설계하면, 도면을 그리기는 쉽지만, 건물을 짓기는 어려워집니다.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지으려면, 그 특이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페라 하우스는 조개 껍데기 세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무척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공자가 결정한 것이 경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튼튼하게 짓기 위해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축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통념, 기존의 전통을 고리타분한 인식으로 여깁니다. 그것들을 말 그대로 해체하여,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론, 새로운 논리를 다 수용하여 창의적인 단계로 나아가자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전통과 문화 습관들 중에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심지어 40대에 이르기까지 가정, 자녀, 배우자의 존재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든 꼭 결혼해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 존재합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고, 자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어도 이 같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전통이 중요하고, 바람직하고, 선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들은 낡은 인식에 불과하

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어떤 부모님이 20대 초중반의 자녀에게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했더니, 자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결혼은 인간이 잘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집하고 장려한 세뇌정책(propaganda 정치인들이 하는 과대 선전)에 불과해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바에야, 자기개발,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결혼해도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일, 자녀를 키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기독교와 맞닿아 있던 기존의 전통과 문화 가치가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해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3년 사이에 기독교에서 수천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되지 않았던 주일성수, 주일날 교회에 직접 가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전통이 해체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성도들,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 신앙의 전통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격이신 하나님, 천국 보좌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서서, 또 때로는 무릎 꿇고, 온 마음을 집중하고 몰입하여 예배를 드리다면, 예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시청하겠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겠다는 것이고, 그저 좋아하는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여기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나마 그들을 지켜주신 신앙의 전통과 가치가 해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틀이 없으면, 내용도 의미도 해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경계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내 생각도 맞고 당신의 생각도 맞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독특하고 다 맞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사회의 기존의 가치와 문화가 완전히 배제되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폐기처분되는 해체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낚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끝까지 신앙의 전통과 문화 습관 가치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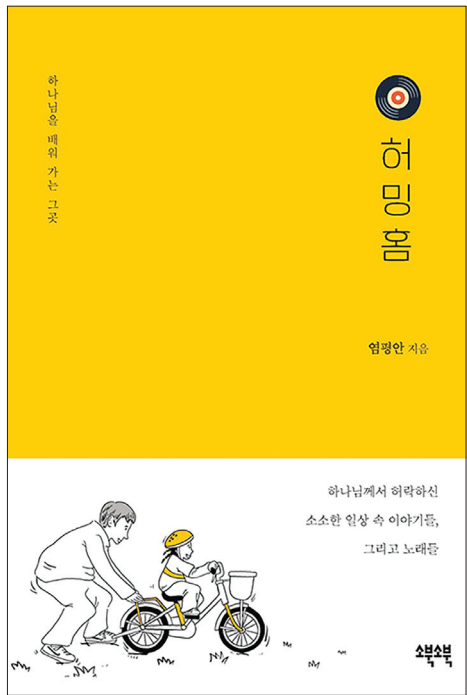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염평안이 부르는 가정의 은혜]

# 고난이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은혜로운 섭리의 과정



**허밍홈**  
**염평안 | 소복소복 |**  
**152쪽 | 11,500원**

“절망의 밤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날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의지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다.”

저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순간순간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사로 만들고, 멜로디를 붙여 만든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공감되는 그의 이야기들은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 이제 막 결혼생활이 시작된 신혼부부들, 육아로 인해 지친 부모님들에게 공감과 잔잔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다. 염평안이 만든 노래엔 그의 삶과 인격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노래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염평안이 만든 가사는 그가 경험한 삶의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인의 솔직한 간증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옛날엔 CCM 앨범이 나올 때, 테이프나 CD 속에 각각의 곡들에 어떤 세션이 참여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곡을 짓고 가사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가수들이 있었다. 이번에 염평안이 쓴 <허밍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그가 만든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한다. 특히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고백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엄청난 상속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롬 8:17).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니. 삼성그룹의 상속자라는 말은 여기에 비교할 거리도 못 된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간다: “...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흥미롭게도 고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한 바울은 이 맥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선포했다(롬 8:28). 그렇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별칭이 아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과정인 것이다.

저자 염평안의 삶이 말해주는 것처럼, 삶은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 허밍 홈은 때로 크라이 홈이 되기도 한다. 콧노래가 아니라 탄식과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가 결국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단지 내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 아래 있다. 그것을 적게 느끼는 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탄식과 호소의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 사랑을 가까이에서 크게 친밀하게 느끼는 날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흥분흥분 거리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며 노래하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좁고 험악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가족과 함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염평안의 <허밍홈>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

내와 자녀들, 함께 한 친구들과 동료들에 대한 감사는 항상 그들을 통해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이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저자는 자신의 무력함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한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삶을 통해 염평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염평안을 통해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나게 됐다. 그 노래는 이제 부르는 우리의 또 다른 사랑 고백이 된다.

<허밍 홈>은 아주 쉽게 읽히는 짧은 수필이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염평안의 노래도 그렇다. 간단해 보이지만 담겨 있는 고백의 깊이를 헤아려 보면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싱어송라이터 염평안. ©크루 DB

이 책에 담긴 삶의 간증과 거기서 흘러나온 노래는 QR코드를 통해 음원으로 들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노래를 들어 보라. 그리고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흘러만 가는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라. 당신의 집이 ‘허밍 홈’이 되도록, 당신이 독신이라면 그런 가정을 꿈꾸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염평안의 글과 노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어니함하며 조인들의 길에 서지, 어니함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어니함하고 오직 의호오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어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라.

시편 1:1, 2, 3.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PSALMS 1:1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기독교적 시각으로 보기

민족주의로 발발한 불의한 전쟁  
무고한 민간인들에 잔혹한 테러  
학살과 약탈 대신 대화와 협상을  
전쟁 발발 자체가 썩, 멈춰야 썩

◆이스라엘과 유대교: 세속적 민족주의에 힘입은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20일 현재 양측 합계 사망자 수는 4,000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1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힘입어 팔레스타인의 압제자로 등극한 이스라엘, 그리고 졸지에 독립의 기회와 삶의 터전을 잃고 테러에 전념하는 무장집단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두 민족의 유혈 남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 이스라엘은 오랜 학대와 학살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고토를 회복하고 삶의 안전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있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삶의 터전과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 어느 편이 가해자이고 어느 편이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따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현대 팔레스타인 지역 역사로만 본다면 아스라엘이 침입자고 팔레스타인이 피해자이지만, 중동과 서구 역사 전체를

로 마음이 기울기 마련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전쟁에서 종교전쟁의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념이 기본적으로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고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 가운데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는 했지만,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주된 동기는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

포그롬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과 폭력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켜내려는 정치안보적 동기가 건국 움직임을 주도했고, 유대교는 거기에 역사적 명분과 정신적 중심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서구 전역에 퍼져나간 유대인들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18-19세기 유럽 전역을 뒤흔든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아 유대교 신앙을 포기했다.

이 시기 동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공동체에 발흥한 유대교 신비주의 하시디즘 또한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디아스포라의 젊은 세대들을 단속하고 유대교적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출발된 신앙 운동이었다. 이런 신앙 운동이 따로 필요할 만큼, 당시 젊은 유대인 청년들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유대교 공



가자지구 리말 지역 내 하마스 관련 건물들이 이스라엘 폭격으로 파괴됐다. ©KRM

운데 거의 대다수는 정통파 유대교 신앙이나 하시디즘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이스라엘과 전쟁: 신앙이 아닌 이권과 영토를 위한 불의한 전쟁

이처럼 근현대 서구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경제, 언론, 학문, 예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 그리고 그런 역량을 이스라엘 건국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데는 유대교적 교육 전통과 삶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교를 믿지 않으며, 이런 무종교화 추세는 디아스포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굽직한 전쟁들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종교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분쟁을 빚자한 민족 간 영토분쟁이다. 결국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두고 호전적 정치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민족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이런 분쟁은 정권을 잡은 이들 입장에서는 집권을 돕는 편리한 도구 취급을 받는다.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기만적 전략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현대의 전쟁들보다 훨씬 종교분쟁 성격이 짙었던 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이였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휘관 티베리어스(제레미 아이언스 분)의 다음과 같은 대사를 남겼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나는 우리가 이권과 영토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동양 역사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 맹자는 진심 하(盡心 下) 2장에서 “춘추무의전

(春秋無義戰)”이라는 말을 남겼다. 맹자는 춘추시대, 즉 동주(東周) 시대 제후들이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각 전쟁에 나름의 명분이 있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고 평한다. 이 성어를 통해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전쟁은 결국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말은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인이었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으로서 권력과 이권을 탐하는 고도화된 전략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전쟁에 송고한 이념이란 없으며, 오로지 집단의 욕망의 충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이런 맥락에서 그 본연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부 모두 중대한 실정(失政)으로 각 진영에서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이 집권 연장의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은 국제정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푸틴의 실정과 집권연장 욕망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양측 모두 즉시 학살과 약탈,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상을 개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에 정신적·문화적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서 그들이 선한 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슬림이라서 악의 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전쟁은 약소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압제자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테러를 가하는 테러분자들이 맞붙은 추악한 싸움일 뿐이다. 영혼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보는 기독교 신앙인 입장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일 자체가 악이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선이다.

박욱주박사(연세대연합신대학원겸임교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티베리어스(제레미 아이언스 분). 십자군 전쟁이 이권과 영토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인정한다.

멀리까지 내다본다면 이스라엘 또한 엄연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서로가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거기서 벗어나려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종래에는 어느 편도 제대로 명분을 내세울 수 없는 이전투구만 수십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다.

기독교 세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는 구약성서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

동체 특유의 교육열과 생존력을 이어받아 유럽 사회 각 방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사상계에서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후설 같은 걸출한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말라니 모딜리아니 등이 오늘날까지 큰 명성을 얻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등 다수의 탁월한 학자들이 등장해 과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들 가

##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척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 구령의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연구에 착념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끄실 목회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설교와 상담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경력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목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 (담임목사)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최종 학위서
- 신앙 고백서
- 목회 계획서
- 설교 (영상 파일) 2편 및 교회 홈페이지 설교동영상 사이트 소개
- 최근 교회주보 (2회)
- 추천서 (2장)

3.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850)699-5448

4. 서류 제출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도착)

5. 기타

-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목 목사 / 담임목사청빙위원장 신철 정로 / 서기 서숙자 권사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 담임 목사 청빙

워싱턴 벨뷰에 소재한 벨뷰 필그림 장로 교회(PC USA)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학력-정규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하신 분
- 경력-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년 이상 시무하신 분(이민 목회)
- 소속 PCUSA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한국어 영어) 언어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영주권자 이상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
-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 1통
-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 각 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동영상 파일, YouTube link)
- 신앙 고백서 1부
- 목회 비전서 1부
- 자기 소개서 (성장 과정 및 활동 내역 중심)

제출 마감일시 : 2024년 1월 31일

제출처우편 : Korean Pilgrim Presbyterian Church

6016 SE 120th Ave, Bellevue, WA 98006 e-mail: kppc.friendship@gmail.com

기타

-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는 e-mail로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한인 필그림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